전기계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
electimes.com
배너광고문의 : 02)2168-1300(代)

월간 전기설비
???? (02)2168-1300(代)

김현종 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 성과를 공유하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에 관련 경제·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정창길 사장, 보령 1~8호기 개선공사 준공식

정창길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7일 충남 보령발전본부에서 열린 보령 1~8호기 석탄취급설비 성능개선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석탄취급설비란 화력발전의 주원료가 되는 석탄을 인근 부두로부터 발전소 내부로 운반하는 설비로, 노후화된 17개 라인을 철거하고 45개 라인을 신설해 시간당 3200여톤의 석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부두–육상이송 구간에는 밀폐형 공기부상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소음과 비산먼지를 최소화했다.

이병욱 사장, 소통경영 설명회·초청특강

이병욱 한국지역난방기술 사장은 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1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소통경영 설명회·초청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소통경영 설명회는 올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 및 매출 저하 등 경영현황과 발전시장의 전망을 이해하고 전 직원의 화합과 소통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곽병성 원장,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곽병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7일 대전 본원에서 연구원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원 전 직원을 비롯해 외빈, 전임 기관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977년 9월 열관리시험연구소로 발족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91년 현재의 연구원으로 독립해 4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기술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샐러리맨, 네 멋대로 즐겨라' (10)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 '그림발전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아름다운 이음매,
당신의 이음매는 어떤 모습인가요?

감성 충전! 힐링 충만!

대부분 그림에 초보지만 사내전시회도 가져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의 미술동호회인 '그림발전소' 회원들은 강당으로 모여든다.

이날은 일주일에 한 번 전문강사를 초빙해 유화 강습과 모작(模作)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유화는 수채화와 달리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마르고 나면 번지지를 않아서 덧칠에 덧칠을 해도 돼서 미술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가장 적합하다.

지난해 2월 만들어진 '그림발전소'는 현재 열일곱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남자직원 비중이 워낙 많아 주로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동호회가 많은 발전회사에서 미술 동호회는 왠지 낯설지만, 회원들의 미술사랑은 대단하다.

"취미를 찾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미술학원이나 문화센터를 다닌 적이 있어요. 하지만 회사일 하랴, 집안일 하랴, 아이 키우랴 수강증만 끊어놓고 바빠서 제대로 못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마침 회사에서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제가 가입하고 싶은 동호회가 딱히 없었던 터라 미술 동호회를 만들어보자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미술동호회 '그림발전소'의 탄생은 분당본부 정보보안팀 민호기 대리의 역할이 컸다.

그녀처럼 회원들 대부분은 미술이 아닌 전기나 기계가 전공이지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에 동호회에 가입했다.

이들은 감성을 충전하고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림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동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민호기 대리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다른 것을 다 잊고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어렸을 때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려본 게 전부지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환경화학부의 한 직원도 "손재주는 없지만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다"며 "이제는 좋은 배경만 보면 그리고 충동이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회사에서 그린 그림을 집에다 걸어놨더니 아이들도 좋아한다"며 "그림을 통해 삶의 소소한 행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분당본부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을 소통(동호회)의 날로 지정해 3시가 되면 동호회원들이 함께 모여 그림도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최근에는 동호회 홍보도 할 겸 팝아트 체험행사를 열었다. 팝아트는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일종의 웹툰으로, 직원들이 재미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미술 동호회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

김학빈 분당발전본부장은 "미술 동호회 회원이 팝아트로 초상화를 멋있게 그려줘 사무실에 잘 보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호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 대리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수채화나 아크릴화 같은 다른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싶다"며 "최근 사내에서 미술 전시회도 가졌는데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전시해서 발전소를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발전소에 대한 좋은 분위기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형석 기자 azar76@

"지구온난화 막으려면 원자력 필요"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세계 에너지석학 중 한 명인 리처드 뮬러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자력발전이 주요 해결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뮬러 교수는 7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납냉각원자로과학기술학회 명사 특강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에너지 보존(conservation), 천연가스, 원자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뮬러 교수는 중성미자의 연구 및 핵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UC버클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이었던 그는 '대통령을 위한 물리학',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와 국제 제4세대 원전 납냉각원자로 기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그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과 독일, 프랑스, 한국 등에서 원자력을 줄이거나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공포심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폐기물만 잘 처리하면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해 "폐기물 보관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 땅 속 깊이 시추공 밑으로 저장하면 드라이캐스트(건식저장)로도 저장할 수 있다"며 "기술적 문제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원전 건설 비용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가량 저렴한데다 중국의 원전 독식을 막으려면 원전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소형 모듈형 원자력발전소기술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석 기자 azar76@

전기안전公, 전북 공공기관과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 앞장

전기안전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5일 오후 전북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 주관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2회 청렴누리 문화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청렴누리 문화제는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발맞춰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자 전북혁신도시 입주 기관 4곳과 전북도 등 도내 공공기관 3곳이 추진한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후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 한상옥 전기안전공사 감사,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등 도내 7개 공공기관 대표와 민간단체,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부패 근절의 의지를 다졌다.

조정훈 기자 jojh@

www.techen.co.kr
테크엔은 – 안전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TECHEN의 은나노 칩 방열 기술을 바탕으로 고효율,친환경,신재생에너지,저탄소 녹색 성장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여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극복할 새로운 혁신 기술입니다.
경 NEP인증 취득 축
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이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NEP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독창적 기술력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공공기관의 20% 이상 의무구매대상 및 기술심사면제 등 혜택이 많은 고도의 기술인증
두번째 신기술(NET)인증 취득
2012년(591호)에 이어 2016년(1001호)에도 신기술인증을 받아 LED 조명분야에서 유일하게 2개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
모듈 LED 가로등 (한국도로공사 적합제품 선정)
모듈 LED 가로등 (첨단 유선형 디자인)
모듈 LED 보안등 (한국도로공사 표준모듈 적용)
CC카메라 내장형 보안등 (치안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방지효과)
CC카메라 겸용 대형투광등 (군부대,관공서,스포츠 시설)
방폭 LED 투광등 (방폭설계 및 SMPS 일체구조)
고출력 LED 투광등 (골프장,항만,공항,기타)
모듈 LED 터널등 (한국도로공사 적합제품 선정)
LED조명등.전기공사.ESCO전문기업
(주)테크엔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50길 99
T.(053)593-5678 F.(053)593-1279
인증제품
LED조명 & 신재생에너지 전문생산기업
영남엘이디(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
T.(055)262-8899 F.(070)4062-6279
- 2012년 NET신기술인증
- 2015년 엔지니어대상 , 아름다운납세자상 , 산업포장 , IR52 장영실상 , 국무총리상 수상
- 2016년 신기술(NET)인증 2012년 591호 ,2016년 1001호 2회 획득
- 2013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 2015년 전품목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2년간 조달검사 면제)
- 2017년 NEP 인증 취득
- 2014년 교육기부대상 , 대구광역시 스타기업
- 2016년 산업신기술 대통령상 수상